농진청 개발 '탐나는 봉' 기술이전

미국 현지 감귤재배 ·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10년 개발한 '탐나는봉'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 이전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를 진행해 온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 '부지화'(한라봉)보다 '탐나는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간이며, 계약 물량은 총 23만 6000주(그루)로,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은 1주당 1.25달러씩 총 29만 5000달러(3억6,500만 원) 규모다. 또한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계약 체결 상품인 '탐나는봉'은 '부지화'(한라봉)의 주심배 돌연변이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특징은 겉모양이 '부지화'와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이다. 당도는 15브릭스(°Bx) 내외로 '부지화'보다 1브릭스(°Bx) 높고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국내에 본격 보급되고 있는 '탐나는봉'은 현재(2021년) 9.2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점차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감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농진청 감귤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해외적응성시험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더해 농진청은 호주에서 2019년부터 '미니향', '탐빛1호'의 해외적응성을 시험 중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매 평가를 통해 호주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M. Park INC. 김병학(재미교포) 대표이사는 "기존 품종보다 생육과 맛 면에서 뛰어난 '탐나는봉'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계 한라봉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품질 개선과 현지 판매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탐나는봉'의 미국 진출은 많은 감귤 육종 강국의 도전지인 미국에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한우 한판구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전북농협, 라이블리 신규 고객 대상 990원 할인 이벤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www.nhlyvly.com)'에서 신규가입 고객을 위한 신제품 할인 행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고객 가입 후 제품명 앞에 (LYVLY)가 표기된 상품 2만원 이상과, '(첫구매 이벤트) 한우 한판구이'(300g)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함께 결제 시 '한우 한판구이'(정가 9,900원)를 90% 할인된 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우 제비추리, 치마살 등 특수 부위를 15~2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며, '지역 명품관'에서는 지역별 축산물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에 주문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농협 라이블리에 가입해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축산물 섭취로 면역력을 강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전주대 교원창업기업 '아이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선정

전주대학교가 소방 및 재난안전분야 4차산업 분야 교원창업기업인 (주)아이팝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소방 3D 객체 데이터 구축 분야에서 평가 1위로 우선과제조정대상 총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3D 데이터 구축사업은 올해 4월부터 8개월 간 약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관의 행동 모사 3D 데이터 구축, 소방시설 및 장비 3D 객체 구축, 화재영상 3D객체 데이터를 가상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3D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첨단 구축사업이다. 3D 객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소싱인력 213명과 청년 채용 178명 등 전체 약 4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구축되는 3D 객체 데이터 자원은 가상현실 소방관 훈련 및 각종 3D, 2D 객체데이터의 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속성정보를 통한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 수집되는 데이터는 일반 3D 사업자에게도 공개될 예정으로 소방관행동모사 3D 객체 682종 시설 및 장비 6,000종 및 15만건 이미지와 메타데이터, 화염 3D객체 2,000종과 실내공간생성 8,000평에 달한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전주대 (주)아이팝 김동현 교수(대표이사)는 "앞으로 소방분야 3D 객체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분야 메타버스와 AI기술 활성화하고, 현재 개발 중인 가상현실 소방훈련 콘텐츠와 연동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첨단 소방안전 기업이 돼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김동현 교수팀은 2019년 소방청 225억원 연구사업 '실감기반 가상현실 첨단소방훈련시스템 구축사업' 총괄사업책임자로 선정, 2024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농업기술 ·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 협업

농진청-특허청,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업으로 개도국에서 한국의 원조 부문 위상이 높아질 계기를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농진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하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을 연계해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농진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 KOPIA 센터를 활용해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발굴 및 보급할 예정이다.

이어서 특허청은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가공된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의 상품화(브랜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청은 상호 전문성을 결합해 농업분야 ODA 융복합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 및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기술 교육부터 농산물 가공기술과 판매를 위한 상품화(브랜드화)까지 일괄 지원되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 가치가 높아져 현지 농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홍 청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며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래 청장은 "양 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의 동반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기술과 지식재산의 연계를 통해 개도국 현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전 차단

농관원, 31일까지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 및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농협, 약 2,000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000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뤄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1588-8112)로 연락하면 된다.

/최대희기자

'금융 · 경제사업의 허브로'

고창 대성농협 종합청사 · 하나로마트 준공식

고창 대성농협(조합장 김민성)은 조합원과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청사와 하나로마트 준공식을 최근 고창군 대산면 공음대산로 940에 새로이 자리 잡은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농협중앙회 수석이사인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윤종기 상무, 신용보증기금 이방현 상무와 농협중앙회 정재호 지역본부장, 전·남북의 주요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 관내 유관 기관사회단체장,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대성농협 종합청사는 사업비 55억을 투입하여 연건평 2,607㎡에 하나로마트 729㎡, 금융점포 372㎡, 대회의실 858㎡, 소회의실 128㎡, 직원 및 조합원 휴게실 202㎡ 등을 갖추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실내 카페시설과 야외 공간에 정자, 인공폭포, 넓은 주차 공간 등 지역민과 조합원들의 편리한 접근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시설을 추가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도시권 마트에 버금가는 세련된 매장배치와 신선한 정육매장과 베이커리를 배치해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찬사와 함께 품격 있는 매장으로 자리잡았다. 금년도에는 신청사 여유부지에 영농자재 판매센터와 저온저장고 시설 등 경제사업시설을 추가로 배치해 금융과 경제사업을 조합원들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LX,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삼척·동해다.

감면 기간은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시설물이 전소·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지적측량 의뢰 시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뉴시스

도내 농생명 · 바이오 · 식품 분야 중기 대상 지원시책 정리

생진원, 지원책 총람 책자 배포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올해 도내 농생명·바이오·식품 분야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알리기 위해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 지원시책 총람' 책자를 발간·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도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영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와 전북중기청, aT, 코트라, 무역협회, 중진공, 연구특구본부, 농업기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식센터 등 12개 유관 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총망라 돼 있다.

전북도와 진흥원은 매년 초 도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도내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 대상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의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해 도내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책자는 마케팅, 기술사업화, R&D, 지식재산창출, 창업지원, 인력양성·취업연계, 자금지원, 장비사용 지원, 수출·해외진출 등 9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세부 사업별, 유관기관 별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시기, 문의처 등이 자세히 설명 돼 있어 기업이 사업 신청시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추가로 필요한 시책총람 책자는 바이오진흥원 기업지원팀에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시책자료 파일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시책설명회를 하지 못하는 대신, 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시책총람 책자로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부안농협 · 농협부안군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21일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 일원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농협의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한 ESG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농협 임직원을 비롯, 부안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미자)과 고향주부모임(회장 김경리)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고마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수거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조합원 및 농업인의 편의 제고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실시 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삼형 지부장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부안=김석진 기자